

‘우영우’ 캐릭터·메시지·감동 3박자

8회 시청률 13.1% 대항행
박은빈 열연에 호평 쏟아져
마음 울리는 대사에 ‘울컥’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출연진. 왼쪽부터 강태오·박은빈·강기영 /ENA 제공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다. 24일 방송가에 따르면 ‘우영우’는 케이블 채널은 물론 지상파에서도 좀처럼 보기 드문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며 예상치 못한 대항행 기록을 세우고 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가 집계한 21일 방송 ‘우영우’ 8회 시청률은 13.1%(비지상파 유료가구)로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다. 같은 날 방영된 수목드라마 KBS ‘징크스의 연인’ 3.3%, JTBC ‘인사이더’ 2.6%, tvN ‘이브’ 4.5%를 훨씬 앞서는 수치다.

사실 ‘우영우’는 시청자들에게는 낮은 채널인 ENA에 편성되면서 작품이 공개되기 이전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주연 배우인 박은빈은 탄탄한 연기력으로 호평받는 연기자지만, 톱스타는 아니었기에 총 16부작의 서사를 혼자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영우’는 첫 회 공개 직후 시청자들의 ‘폭풍’ 공감을 사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사랑스러운 캐릭터와 공감 가는 메시지, 진정성이 느껴지는 감동 3박자를 모두 갖춘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우영우’의 가장 큰 인기 요인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 캐릭터로 꼽힌다.

초반에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를 동시에 가진 특징이 부각됐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캐

릭터 자체의 매력에 힘을 발휘하고 있다.

우영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랩을 하듯 내뱉는 자기소개는 자폐라는 장애를 설명해주는 동시에 우영우가 엉뚱하고 재밌는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어느 한 곳에 시선을 두지 못한 채 놀란 토끼처럼 동그랗게 뜬 눈, 춤을 추는 듯한 리드미컬한 발걸음,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불쑥 내뱉어버리는 모습도 자폐인의 특징을 반영한 우영우만의 매력이다.

과거 자폐인을 주인공으로 삼았던 영화 ‘말아톤’(2005), 드라마 ‘굿닥터’(2013) 등이 자폐를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나 남들에게 배척당하는 원인으로 그렸다면, ‘우영우’는 자폐를 유쾌한 모습으로 그려낸다.

무엇보다 우영우로 분한 박은빈의 연기가 탁월하다. 박은빈의 연기는 자폐인이란 특징을 자연스럽게 살려내면서도 자신만의 사랑스러

움은 듬뿍 담아낸다.

보통 법정 드라마가 치정, 살인, 권력형 비리 등 자극적이고 복잡한 사건들을 깊이 있게 다룬다면 ‘우영우’는 노인, 자폐인, 성소수자, 탈북민, 영세업체 등 사회적 약자들이나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우영우’는 어느 힐링 드라마처럼 따뜻한 감성을 전하는데 이 방송을 보다 ‘울컥’했다는 반응이 유독 많다.

드라마를 보다보면 자폐를 바라보는 사회의 왜곡된 시선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이 때마다 우영우는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공회정 드라마평론가는 “기본적으로 우영우는 세상이 자신을 차별의 시선으로 보는 걸 인정하고 자신만의 해법을 찾아간다”며 “사건자들은 우영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며 감동하고 때론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넷플릭스에 나오는 내 모습 신기”

‘블랙의 신부’ 차지연

“너무 신기했어요. ‘두둥’(넷플릭스 시그널 뮤직)하고 작품이 시작하는데 제 모습이 나오는 게. 저희 아이도 넷플릭스에 엄마가 있다며 신기해하더라고요.”

넷플릭스 시리즈 ‘블랙의 신부’를 통해 처음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작품에 도전한 배우 차지연은 최근 화상 인터뷰에서 환하게 웃으며 작품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배우로 꼽히는 차지연은 OTT 작품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콘텐트 업계에서 ‘빅 뉴스’였다.

차지연은 관객과 호흡하는 뮤지컬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드라마는 작업 방식부터 달라 집중력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무대는 긴 시간 (상대 배우와) 호흡을 맞추지만 (드라마에서는) 합을 맞추는 시간이 적다”며 “그래서 그런지 배우들이

만났을 때 몰입도가 컸고,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고 말했다.

차지연은 ‘블랙의 신부’에서 결혼정보회사 렉스의 대표 최유선 역을 맡았다. 한 걸음 뒤에서 모든 인물의 욕망을 꿰뚫어 보는 차갑고 냉정한 캐릭터다.

그는 “최유선은 사람의 속마음을 간파하는데 능하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지략가”라며 “감정이나 계획이 예측되지 않도록 얼굴에 표정이 드러나지 않게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적인 이미지가 강한 탓인지 차지연은 드라마·영화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인물을 주로 맡아왔다.

차지연은 “힘 있는 캐릭터도 좋지만 부드럽고 수줍고 소녀 같은 부분도 제 안에 존재한다”며 “다음 작품에서는 일상적이고 편안한 인물도 연기해보고 싶다”고 했다.

‘뮤지컬 여신’으로 불리는 차지연은 이제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서도 대중들을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블랙의 신부’ 차지연 /넷플릭스 제공

‘소시탐탐’ 화요 예능 정복...485만뷰 돌파

소녀시대, 버라이어티 도전기

5년 만에 소녀시대 멤버들이 다시 뭉친 JTBC 예능 ‘소시탐탐’이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24일 주요 방송사의 클립 주문형 비디오(VOD)를 온라인에 유통하는 스마트미디어랩(SMR)에 따르면 19일 기준 ‘소시탐탐’ 클립 조회 수는 티저 예고영상을 포함해 방송 2회 만에 485만뷰를 돌파했다.

‘소시탐탐’은 첫 방송 전부터 ‘소녀시대 완전체 출연’ 소식으로 티저 영상이 100만뷰를 넘어서며 큰 관심을 모았다. 1회 조회 수는 211만뷰, 2회는 174만뷰를 기록했다.

‘소시탐탐’은 데뷔 15주년 앨범 발매에 앞서 소녀시대 멤버들이 다양한 버라이어티 예능에 도전한다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이다.

소녀시대 멤버들은 우정 여행부터 농촌 체험, 추리 게임, 토크쇼, 퐁트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무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상생활의

속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다.

가장 많이 본 클립은 우정 여행 둘째 날 하이 라이트 영상으로 30대가 된 멤버들이 아침에 라면으로 전날 마신 술을 해장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누적 86만뷰를 기록했다.

두 번째로 많이 본 클립은 특별한 미션 수행 없이 식사하는 촬영을 어색해하는 태연을 장난스럽게 놀리는 씨니의 모습으로 30만뷰를 기록했다.

클립 조회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 점유율은 20대가 60.9%를 차지했고, 30대 22.8%, 40대 11.2%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왜 오수재인가’ 시청률 10.7%로 종영

서현진이 카리스마 넘치는 변호사로 분한 SBS 금토드라마 ‘왜 오수재인가’가 10%대 시청률로 종영했다.

24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방송된 ‘왜 오수재인가’ 최종회 시청률은 10.7%로 집계됐다.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최종회에서 오수재(서현진 분)는 TK로펌 대표 최태국(허준호)의 추악한 민낯과 끔찍한 악행을 세상에 알렸다.

‘왜 오수재인가’는 진실과 거짓, 정의와 악

행이 대립하는 구도로 극을 긴장감 있게 끌고 가며 호평을 받았다.

진실과 정의 편에 서려는 오수재는 기존 법정물의 착한 캐릭터들이 마음이 여린 탓에 약역의 힘에 밀려 고군분투하는 것과 달리, 냉철하고 영리한 변호사로서 최태국과 팽팽하게 맞서며 극의 재미를 높였다.

극의 초반부터 박소영의 미심쩍은 극단적 선택으로 오수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을 빠르게 전개하며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했다. /연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통합뉴스룸 7:50 인강극장 8:25 아침대망 9:30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TV쇼 진품명품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볼만한 아침 1부 8:10 해 볼만한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오라차차 내 인생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미남당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생활속 오늘 아침 8:50 비밀의 집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이맛에 산다 11:30 헬로킴지 체육교실 11:45 똑딱 구조대2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리치 맛있는 수업	6:10 세계대마기행 7:00 뽀롱뽀롱 뽀로로 7:15 우당탕탕 우하인전단 8:00 당당명 유지원 8:20 한글용사 아이야 9:05 그린조기 구조대 9:20 꼬마버스 타요 10:10 한국의 돌래길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대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50 EBS 다큐프라임 2:45 비평가 사람들 3:35 안전채널e 3:45 지식채널e 4:05 영어스토리 타임 4:15 페피피 5:00 EBS 뉴스 5:45 출중! 슈퍼퀵스 6:00 생활속 워드지 해결단 6:45 최고다! 흥기심 딱지 7:30 한국의 돌래길 7:5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8:40 세계대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당신은 몰랐던 20대 이야기 '1부' 10:45 신개념의 맛터 사이클 다이어리 11:35 위대한수업 11:55 클래스e
12:00 통합뉴스룸 1:00 문화스캐치 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2:00 국회 대정부 질문 4:00 시사건전 5:00 통합뉴스룸 5:30 동물의 왕국	12:15 미남당 1:30 세상을 걷다 스페셜 1: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0 KBS 뉴스타임 3:10 캐치 티니핑 3:30 TV 유치원 4:00 세상을 모든 다큐 4:50 연중 라이브 5: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도포자락 휘날리며 1:50 국회 대정부 질문 3:55 기분 좋은 날 4:55 5MBC 뉴스 5:10 안싸우면 다행이야	12:00 SBS 12 뉴스 12:50 동상이몽2 2:00 국회 대정부 질문 5:00 SBS 오수재 5:50 세상을 이룬 일이다	6:00 세계대마기행 7:00 뽀롱뽀롱 뽀로로 7:15 우당탕탕 우하인전단 8:00 당당명 유지원 8:20 한글용사 아이야 9:05 그린조기 구조대 9:20 꼬마버스 타요 10:10 한국의 돌래길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대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50 EBS 다큐프라임 2:45 비평가 사람들 3:35 안전채널e 3:45 지식채널e 4:05 영어스토리 타임 4:15 페피피 5:00 EBS 뉴스 5:45 출중! 슈퍼퀵스 6:00 생활속 워드지 해결단 6:45 최고다! 흥기심 딱지 7:30 한국의 돌래길 7:5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8:40 세계대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당신은 몰랐던 20대 이야기 '1부' 10:45 신개념의 맛터 사이클 다이어리 11:35 위대한수업 11:55 클래스e
6:00 6시 내고향 7:00 통합뉴스룸 7:40 우리말 겨우기 8:30 오라차차 내 인생 9:00 통합뉴스룸 10:00 가요무대 10:55 더 라이브 11:30 통합뉴스룸	6:30 2TV 생생정보 7:50 황금기연 8:30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9:50 미남당 11:00 개는 훌륭하다	6:05 생활속 오늘 저녁 7:05 비밀의 집 7:40 MBC 뉴스데스크 9:00 안 싸우면 다행이야 10:30 오영영 리포트 결혼지옥	6:50 생활속 투데이 7:50 SBS 8 뉴스 9:00 생활의 달인 10:00 동상이몽2 11:40 집속 무비월드	42년생 절대 내 사람을 서운하게 하지 말라. 54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는다. 66년생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78년생 예의 없는 법칙이란 없다.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선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7월 25일 (음력 6월 27일)

<p>子</p> <p>48년생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라. 60년생 정당한 내뱉을 빼앗기지 말라. 72년생 영동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 84년생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p>	<p>辰</p> <p>52년생 현실을 망각하면 서운한 일을 겪을 수 있다. 64년생 고집 고집하면 된다. 76년생 하루가 즐겁고 편안하다. 88년생 지금은 방황을 끝내고 정착해야 할 때이다.</p>	<p>申</p> <p>44년생 고민하던 일이 해결된다. 56년생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날이다. 68년생 하나를 주고 둘을 얻는 운세이다. 80년생 귀인을 만나서 큰 도움을 받겠다.</p>
<p>丑</p> <p>49년생 한 순간만 참으면 하루가 편안하다. 61년생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말라. 73년생 생 시작이 반이다. 85년생 다소 서러운 일을 당해도 분노하지 말라.</p>	<p>巳</p> <p>41년생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 53년생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신세로다. 65년생 기회와 위기는 항상 주위에 있다. 77년생 싱긋은 좋은 인연을 만난다.</p>	<p>酉</p> <p>45년생 듣기 좋은 말을 잘하는 자를 조심하라. 57년생 표창 받을 만한 일이 있겠다. 69년생은 밀한 거래가 시작된다. 81년생 곧 큰 뜻을 펼치게 된다.</p>
<p>寅</p> <p>50년생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날이다. 62년생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 74년생 지금까지는 내 앞길에 장애물이란 없다. 86년생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p>	<p>午</p> <p>42년생 절대 내 사람을 서운하게 하지 말라. 54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는다. 66년생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78년생 예의 없는 법칙이란 없다.</p>	<p>戌</p> <p>46년생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사는 것도 괜찮다. 58년생 일찍 귀가하라. 70년생 가장 소중한 것은 역시 가족이다. 82년생 애정 운이 넘치는 날이다.</p>
<p>卯</p> <p>51년생 실천 없는 계획은 허상일 뿐이다. 63년생 자신의 분수를 지키면 근심이 없다. 75년생 마음만 바쁘고 일의 진척이 없다. 87년생 주식이 상한가를 친다.</p>	<p>未</p> <p>43년생 뜻밖의 지출이 있겠다. 55년생 험한 길은 돌아가고 중요한 결정은 잠시 미뤄라. 67년생 승리가 눈앞에 있다. 79년생 절대 포기하지 말고 버티라.</p>	<p>亥</p> <p>47년생 외출을 삼가고 매사에 조심하라. 59년생 다함께 힘을 모으면 이룰 수 있다. 71년생 재주를 발휘하여 인기를 얻는다. 83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다.</p>